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2(금) ~ 2025.5.8(목)

제공일시 2025 5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2(금) ~ 2025.5.8(목)

제공일시 2025 5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글로벌 정책

### 1. 미국, 자율주행차 규제 대폭 완화... 중국과 미래차 경쟁 본격화

-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섬. 손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이 중국과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경미한 사고까지 모두 보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각한 사고 위주로만 보고하도록 바뀜. 또, 기업들이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운행 상황이나 사용된 소프트웨어 버전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됨

[\(미디어파인 2025.5.6\)](#)

### 2. EU, 자동차 탄소섬유 ‘원칙적 금지’ 검토... 일본 산업계 파장

- 유럽연합(EU)이 일본 첨단 소재인 탄소나노튜브(CNT)의 사실상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자동차 소재로 쓰이는 탄소섬유도 원칙상 사용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폐기할 때 나오는 미세 섬유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7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탄소섬유는 도레이, 미쓰비시 케미컬, 데이진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52%(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규제가 적용되면 일본 첨단소재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 업계는 이번 규제 움직임이 자동차를 넘어 다른 제품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5.7\)](#)

### 3. 中, 2035년 전기차 중심 신차 시장 전환 추진

- 중국이 2035년까지 순수 전기차(EV)를 신차 판매의 주력으로 끌어올리고 교통운송 분야의 녹색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섬
-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청정·저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스마트화,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특히, 순수 전기차를 신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신에너지 중대형 트럭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교통 분야의 녹색 연료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임

[\(전기신문 2025.5.7\)](#)

## 국내 정책

### 1. 중진공,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中企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품목을 수출 또는 수출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함
-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산정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함
-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함
-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급망 트랙'을 도입해 탄소 대응체계도 강화함

[\(메트로신문 2025.5.1\)](#)

### 2. 캄보디아로 물산업 수출 넓혀... 환경부, 사절단 파견

- 환경부가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캄보디아에 물산업 협력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4일 밝힘
- 우리 물기업들의 기업별 핵심 기술과 상품을 현지 수요처인 중앙부처, 지자체, 현지 기업들에게 1:1로 설명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기술 상담회를 개최함
-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기존 정부 대 정부 협력(G2G)을 넘어서 캄보디아 정부 대 우리나라 기업들 협력(G2B)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번 사절단을 전략적으로 구성,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함

[\(아시아투데이 2025.5.4\)](#)

### 3. 국토부,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사업 본격 착수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힘. 이번 사업은 기존 철도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정부는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임
- 먼저, 출력 1.2MW(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근거리용(통근용) 열차인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함
- 또,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함

[\(M이코노미뉴스 2025.5.7\)](#)

## 글로벌 기업

### 1. 英 석유 대기업 셸, BP 인수 검토... 세계 석유 업계 재편되나

- 영국의 석유 대기업인 셸이 영국의 또 다른 '오일 메이저' 브리티시페트로리엄(BP)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옴. 관련 논의는 현재 초기 단계지만, 추후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석유산업 역사상 최대 인수합병(M&A)이 될 것으로 보임
-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셸이 자문사들과 BP의 인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함. 거래의 최종 성사 여부에는 BP 주가와 유가가 주요 변수로 꼽힘

[\(서울경제 2025.5.4\)](#)

### 2. “포드, ‘테슬라 대항마’ 전기차 소프트웨어 개발 중단”

- 미국 포드자동차가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에 맞서 추진해오던 차세대 차량 전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소식통들에 따르면, 포드가 차량 소프트웨어 기능을 간소화하기 위해 그간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결국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고 전해짐. 포드가 개발 중이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경쟁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됨

[\(연합뉴스 2025.5.1\)](#)

### 3. 에퀴노르, 브라질 해상 페레그리누 유전 매각... 프리우, 33억5000만 달러에 인수

-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브라질 해상 페레그리누(Peregrino) 유전의 운영권을 포함한 지분 60%를 33억5000만달러(약 4조6983억원)에 매각함. 브라질 최대 독립 석유회사인 프리우(Prio)가 인수자로 나서며 이번 거래를 통해 페레그리누 유전 지분 100%를 확보함
- 에퀴노르 측은 이번 매각이 국제 자산 목록(포트폴리오)을 정비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5.4\)](#)

### 4. “화웨이, ‘중국 반도체 자립’ 이룰 대규모 생산시설 건설 중”

-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을 중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 광밍구에 지어지고 있는 반도체 제조 공장 세 곳은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화웨이가 여기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연합뉴스 2025.5.6\)](#)

## 국내 기업

### 1. HD현대,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와 탈탄소 기술·통합물류 맞손

- HD현대가 세계적인 해운·물류 기업인 A.P. 몰러 머스크(이하 머스크)와 ‘탈탄소 해운 기술 발전 및 글로벌 통합 물류 서비스 분야의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힘
- 이번 MOU를 통해 머스크는 HD현대의 최첨단 선박 탈탄소 기술을 자사의 선단에 적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HD현대는 머스크의 통합 물류 서비스를 계열사에 확대 적용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임
- 양사는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머스크 컨테이너선에 HD현대 선박 자율운항 전문기업인 아비커스(Avikus)의 항해 최적화 솔루션 ‘하이나스(HiNAS)’와 HD현대마린솔루션의 AI 기반 탈탄소·경제운항 솔루션 ‘오션와이즈(OCEANWISE)’를 적용하고 6개월간의 시범 운항에 나섬

[\(세계비즈 2025.5.6\)](#)

### 2. LS그룹, 히말라야 전력사업 뛰어든다

- LS그룹이 히말라야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뛰어듦. 7일 재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이번 주 내 부탄 공기업인 GIDC(Gelephu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rporation)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함
- LS는 오는 7월 현지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함. LS는 전선, 변압기, 통신케이블 등 전력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도시의 초기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계획임

[\(아시아경제 2025.5.7\)](#)

### 3. SK하이닉스, 美패키징공장 탄력... 부지 변경안 승인

-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미국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시가 용지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총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이 공식 추진됨
-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시설을 구축하고, 2028년 하반기부터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한다는 방침임

[\(매일경제 2025.5.7\)](#)

### 4. 대한전선, 카타르 초고압 변전소 사업 수주

- 대한전선이 카타르의 초고압 변전소 및 송전망 구축 사업을 수주함. 7일 카타르 전력청에 따르면, 총 31억카타르리알(약 1조1790억원) 규모 전략적 전력망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전선 포함 4개 기업이 계약을 6일 체결함
- 대한전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및 연결, 변전소 구축 공사에 참여하게 되며, 카타르 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프레스나인 2025.5.7\)](#)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5.2(금) ~ 2025.5.8(목)

제공일시 2025 5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 풍력개발 중단 지시에 17개 주 소송… “법적 근거 없이 정책 폐기는 위법” 주장**

- 뉴욕주를 포함한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조치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 이번 소송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일리노이, 델라웨어 등 17개 주가 소송에 참여했음. 이들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풍력발전 승인 절차를 법적 근거 없이 전면 중단한 것은 행정절차법, 청정대기법을 포함한 다수 연방법을 위반했다” 주장했음

- 소송은 에너지부 크리스 라이트 장관, 내무부 더그 버검 장관 등 관계자와 대통령을 피고로 지목하고,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음. 아울러 상무부, 내무부, 환경보호청(EPA) 등 주요 연방 기관들이 해당 지침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집행 금지명령도 요구했음

- 원고 측은 정부가 기존 청정에너지 정책을 폐기하면서도 정책 전환의 사유나 구체적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음. 또한 포괄적 환경 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지적했음

-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약 10건의 대규모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해 상업용 허가를 부여했음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취임 직후, ‘풍력 지침(Wind Directive)’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임대·대출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라고 지시했음. 석유, 가스, 광물, 환경보전 등 타 목적의 임대는 제외됐으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에 따라 석유, 메탄,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더그 버검 장관은 지난 4월 해양에너지관리국에 뉴욕 인근에서 진행 중이었던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엠포이어 윈드(Empire Wind)’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음. 이 사업은 약 30% 진행된 상태였으며, 완공 시 뉴욕주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 주 정부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미 풍력발전 인프라와 송전망 확장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음

- 현재 풍력발전은 미국 전력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분야 중 하나임. 특히 해상풍력은 동부 해안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

- 환경단체 EDF(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미국 청정에너지 부문 책임변호사 테드 켈리는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풍력산업을 후퇴시켰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대통령의 인기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 법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극단적인 기후 정책으로 인해 블루스테이트(blue state) 주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반박했음

- 미국 공영방송 매체인 PBS는 이번 법적 공방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권한 충돌로 해석했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음

[\(임팩트온 2025.5.8\)](#)